



전북대학교가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계기로 대학과 글로벌 산업체들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LA한인상공회의소와 손을 맞잡았다.

#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계기 글로벌 기업과 네트워크 구축

전북대, LA한인상공회의소와 상호 발전 협약 체결  
대학-산업체 간 글로벌 역량 강화 위한 정보 등 교류  
2차전지·반도체 등 기술지원·투자유치 협력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정동완)와 손을 맞잡았다. 이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계기로 대학과 글로벌 산업체들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LA한인상공회의소는 LA거주 한인상공인들의 권익 옹호와 이익창출을 위해 1971년 한인상공인들에 의해 발

족된 단체다. 현재 15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미국을 대표하는 한인경제단체 중 하나다. 24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대학과 산업체 간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와 필요한 인력 등에 교류하기로 했다. 또한 2차전지와 K-방위산업, 반도체 등 지역의 첨단 산업 분야를 견인하고 있는 전북대와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지원과 투자유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유학생 5,000명 유치에 통해 글로벌 허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북대에 LA한인상공회의소가 힘을 보태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협약은 글로벌 한인 기업들과 우리 전북대가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글로벌 역량 강화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유학생 5천 명 유치를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학생 마음건강 관리 '최우선'

전북자치도교육청, 전문상담교사 적극 활용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학생들의 마음 건강 관리 및 상담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와 위(We)센터에 배치된 상담 전문 인력은 총 485명으로, 이 인원에는 전문상담교사 406명뿐만 아니라 전문상담

사 55명, 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24명 등이 포함돼 있다. 학교 내 상담 대부분은 전문상담교사가 맡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에서 발견된 위기학생들을 심층 면담 후 맞춤형 상담, 치유,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국립학교 3곳과 사립학교 1곳은 상담사가 학교 상담을 맡고 있다. 학교 상담인력이 없는 학교는 전문상담 순회교사와 교육지원청 위(We)센터 전문상담사가 담당한다.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를 순회하거나 출장 상담을 통해 학생 상담 공백을 채우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학교 상담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교육부에 정원을 요청해 도내 모든 학생이 충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전주 이종본에서 '제2기 전북교육거버넌스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 '제2기 전북교육거버넌스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국제 IB 창의교육 양성사업 추진 등 주요 성과 발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4일 전주 이종본에서 '제2기 전북교육거버넌스 운영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운영성과 보고회는 제2기 전북교육거버넌스위원회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공개모집과 교육감 추천 위원 등 총 40명으로 구성된 제2기 교육거버넌스위원회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교육발전을 위한 의제발굴 및 제

안 등 전북교육 발전을 지원해왔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제 IB 창의교육 양성사업 추진 △청소년 민주시민평화교육 거버넌스 필요 △학교 통폐합 유희시설 활용 방안 △이동 시간 배정 △통폐합 폐건물 전락적 접근 등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전북 초·중·고등 동요부르기 대회 개최

26일 전주교대 황학당 일일서... 독창 등 총 324명 참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6일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 일일서에서 '2024년 전북 초·중·고등 동요부르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생활 속 음악 경험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신장과 잠재적 소질 계발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대회는 독창 3개 부문과 중창 1개 부문 등 총 4개 부문으로 치러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독창 1~2학년 부문은 30명, 3~4학년은 34명, 5~6학년은 27명이, 또 중창 부문에는 21개팀 총 324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인다. 참가곡은 자유곡(반드시 동요) 1곡으로, 전북초등음악연구회 '동

요샘'이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후원해 제작한 2010~2023년도 '선생님의 동요선물' 음반에 수록된 곡도 가능하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호흥 및 발성, 리듬 및 음정, 표현 및 태도 등을 심사해 각 부문별 금·은·동상에 교육감상을, 장려상에는 초등음악연구회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동요의 노랫말 속에는 기쁨, 희망, 우정, 감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면서 "친구, 선생님과 함께 동요를 부르면서 우리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2024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 전북교육청-전북교총,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

교원 지위 향상·교육활동 보호 방안 등 19개 안건 합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4일 5층 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와 '2024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조인식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12명의 도교육청 위원과 오준영 회장 등 11명의 전북교총 위원이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7월부터 3개월여 동안 예비 교섭·협의 및 도교육청 각 과별 실무 교섭·협의 등을 거쳐 19개 안건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 마련 및 안내 △교원의 복무 관리 보장 △원도심학교 노후 환경 개선 등 교권 보호 및 교사들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추후 합의서를 발간해 각 학교에 배부하고, 합의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이번 합의에 적극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교원단체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문경연 글로벌융합대학장 국무조정실 평가전문 민간위원에



전북대학교 문경연 글로벌융합대학장(국제개발협력위원장)이 정부의 대외원조 총괄조정 기관인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됐다. 임기는 2026년 7월까지 2년이다.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는 원조가 개도국의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핵심 기관으로, 원조 규모 증액이 빈번해지며 한국의 국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해 국민의 세금이 책임감 있게 쓰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4일 전북대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2024년 공적개발원조(ODA) 총액은 약 6조 4천억 원에 달하며, 2025년에는 6조 8천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OECD DAC 국가들의 평균 ODA 비율인 0.3%/GNI에 비해 낮은 수준인 0.18%/GNI에 그치고 있어,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원조 규모 증액을 요청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ODA 규모가 OECD DAC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10조원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평가전문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담당 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1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2024년 기준 46개 부처가 93개국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1,976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문경연 학장은 지난 8월 평가전문위원으로 위촉된 후, 2024년 평가대상 기관 12개 부처의 기관역량 평가와 우수 ODA 사업 선정 심사를 시작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한국의 ODA가 급격한 양적 팽창에 걸맞게 질적 측면에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치과디지털 신기술전문 성과공유 간담회

전주비전대학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에 참여하고 있는 치과디지털신기술전문반이 24일 전주비전대학교 대강당에서 2024년 주분식 교육과정 운영성과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 간담회 및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비전대학교 치위생과가 주축이 된 치과디지털신기술전문반은 지역 내 치과의료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에 지역 산업체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정규교과 및 비교과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자 매년 성과공유 간담회 및 포럼을 개최해 왔다. 이날 포럼에는 지역 내 치과의료계 산업체 인사와 전주비전대학교 치위생과 재학생 등 140여명이 참석해 2024년 LINC 3.0 사업을 통한 특화분야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성과와 캡스톤디자인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참여 학생들의 창업동아리 운영성과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따른 소감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산학연 동반 성장과 변화하는 치과의료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치과디지털신기술전문반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더불어 새내기 치위생사로 성장하기 위해 학업에 전념하는 재학생들의 노력을 격려하고자 전주 치과의사회, 라인치과, 프리임치과 외 다수 업체에서 장학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우석대학교는 24일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이하 전북교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우석대, 전북교총과 교류협력 위한 협약 체결

전북교총 회원 대상 대학 전주캠퍼스 진학 홍보 등 담야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24일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이하 전북교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노준 총장, 우용득 대학원장, 정희석 산학협력단장, 서용성 사무처장, 박미라 산학협력단 부단장, 전북교총 회원 회장, 송지환

수석부회장, 이종혁 원주교총회장, 오한섭 사무총장, 박흥근 부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도내 교원 대상 석사·박사 학위 과정 장학금 혜택 제공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교수의 전북교총 회원 가입 독려 △전북교총 회원 대상 우석대학교 전주캠퍼스 진학 홍보 등이다. /장은성 기자

# 우석대, 30일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 개최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본부는 오는 30일 오후 정공관 5층 세미나실에서 '찾아가는 해외취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해외취업센터와 함께 진행되는 이날 설명회는 해외 취업지원사업 소개와 국가별(영어권·비영어권) 취업전략, 질의응답 등

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재광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내 청년들이 글로벌 취업 기회를 모색하고, 나아가 자신에게 맞는 직무와 국가를 찾아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